

“전북을 로컬에너지 모델 거점으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분산에너지법 대응, 공동체형 햇빛·바람에너지 확산해야”

지난 6월 ‘지역생산·지역소비(地產地消)’형 에너지시스템을 추구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공공적 관리를 통한 전북 곳곳의 햇빛·바람 자원과 지역사회가 결합된 이른바 ‘공동체형 햇빛·바람 분산에너지’를 확산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그간 민간주도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양적 성장에 기여해왔지만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계기로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화된 전력시스템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주민 수용성뿐만 아니라 여러 복잡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지훈 박사는 “일부 광역자치체를 중심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소 운영 수익을 광범위한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특례를 이미 확보한 전북자치도가 공공 관리 기반의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비즈니스의 거점화와 로컬에너지전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 질적 성장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복잡한 기술, 비즈니스 모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조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이다. 전북자치도의 협동조합 수는 전국 3위인 데다 1,000여 개의 공동체 생생마을이 결성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잠재적 동력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정책과제로는 공동체형 분산에너지의 자원을 공공에서 주도해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최근 도민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참여공동체 모집은 물론 홍보와 수익 환원 등 유지관리도 공적 기능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서 제안된 사업모델로는 통합가상발전소(VPP)의 구축을 위한 소규모 공동체 분산에너지를 집합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다음으로 전북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연계한 모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시킨 소규모 공동체형 분산에너지 특성과 마을 모델을 제안되었다. 또,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국가산단에 이어 기초자치체 중심의 농공단지형 소규모 전력수요 지역과의 연계모델도 제시됐다.

이지훈 박사는 “전북은 에너지 비즈니스 생태계의 최적지인 만큼, 다양한 사업모델이 빛을 보려면 지원체제와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라면서 “전북자치도가 에너지 분권과 지역 자립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의 조기구축, 기초자치체의 관심과 참여, 조·산·학·연을 통한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과 검토 등의 지속성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저출생 문제·인구위기 극복

민주 윤준병 의원, ‘저출생정책 효율화법’ 발의 인구영향평가제·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도입 등



2023년 합계출생률이 0.72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저출생 정책과 국가예산 및 기금을 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한 단편적 수준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정책 효율화법’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은 4일, 정부의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수립과 예산·기금의 편성과정에서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와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민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가동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난 2006년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는 근시안적인 단편 정책 답습·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의 부재·선택과 집중의 미작등 등으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시급성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산제도’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현행 공제액보다 2배 이상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민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가동 선언을 높게 평가한다”며 “지난 2006년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4차까지 이어지며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 없는 근시안적인 단편 정책 답습·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피드백의 부재·선택과 집중의 미작등 등으로 저출생 및 인구위기 대응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정책을 재평가하고, 정부정책과 예산 등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평가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저출생 및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정부정책을 마련하는 시급성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미래, 4차원 경영 필요”

“스스로 ‘밥’을 해결하고, 서로 도와 ‘일’을 하며, ‘꿈’을 향해 나아간다.” 이말은 장명국 내일신문 발행인이 쓴 밥·일·꿈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다. 그 밥·일·꿈의 저자이자 내일신문 발행인인 장명국 대표가 전북을 찾아 도청 대강당에서 약 300여명의 청중을 앞에 놓고 전북발전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과 비전을 이야기하며 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북자치도, ‘제5회 백년포럼’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 강연

전북 미래구상 인사이트 제공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내밀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전북발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청중들로부터 깊은 울림을 주었다.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강당에서 ‘제5회 백년포럼’이 열린 가운데, 장명국 대표가 강연을 하고 있다.

장명국 대표가 “스스로 ‘밥’을 해결하고, 서로 도와 ‘일’을 하며, ‘꿈’을 향해 나아간다.” 이말은 장명국 내일신문 발행인이 쓴 밥·일·꿈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다. 그 밥·일·꿈의 저자이자 내일신문 발행인인 장명국 대표가 전북을 찾아 도청 대강당에서 약 300여명의 청중을 앞에 놓고 전북발전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과 비전을 이야기하며 청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제5회 백년포럼으로 개최한 이날 강연은 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밥·일·꿈: 4차원 경영’을 주제로 장명국 대표가 강연했다.

미래구상을 위한 사고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특강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서의 생존전략을 찾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다차원적인 접근법을 통한 새로운 논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 백년포럼 강연의 오는 16일 오전 8시 도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강사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정석 회장이 바이오헬스산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제5회 백년포럼으로 개최한 이날 강연은 4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밥·일·꿈: 4차원 경영’을 주제로 장명국 대표가 강연했다.

강사는 미리 준비한 강연요약서에서 전북도에서 어떻게 인구를 늘리고 소득을 높일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대기업 및 외자기업을 세만금 등에 적극 유치하고, 저성장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의료·자산운용을 통한 실버타운, 은퇴자 마을 만들기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예술가 마을을 적극 유치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에 노력해야 하며, 한 달 살이 등 국내 관광유치와 외국인 이민 유치 등을 통해 전도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도의 전북도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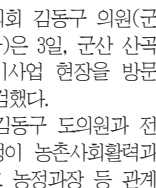
김대중 정부 시절 영업적자로 폐업위기에 놓인 YTN 사장으로서 부임해 전 직원의 50% 월급을 반납받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3개월 만에 영업 흑자로 돌려 놓았다. 이처럼 탁월한 경영 감각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지금도 벤처기업 투자를 진행하는 등 미래에 대한 해안으로 77세의 고령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몇 안 되는 경영의 구루이다. 한국농생명문화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이날 강연에서 자신의 집사람이 전북 출신이라는 말과 함께 전북에 대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김동규 도의원,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규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은 3일, 군산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동규 의원은 “성산면은 친환경 농업의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우드칩공장, 창고 등의 위해시설이 점유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오

랜 기간 주요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있었기에, 정비과정에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장점검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군산 산곡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은 공모를 통해 올해 4월 선정되어 2028년까지 국비 67억 등 총 134억이 투입되며, 정비를 통해 군산시민에게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호 기자

제22회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110일 앞으로

전북경제 도약 큰 디딤돌 가능성

전북연구원 추계 지역경제 파급생산 4531억원 부가가치 1711억원·고용 6242명 등 유발효과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리는 제22회 한인비즈니스대회가 행사개최 110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관련부서인 한인비즈니스과에서는 다시는 지난해 짝배리 대회와 같은 파행이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제22회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 대회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해 보았다.

이 대회가 지역경제 파급생산 유발효과 4,53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11억원, 고용 유발효과 6,242명이라는 큰 수치의 결과를 집계했다.

행사와 관련한 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여러 과학적인 자료와 통계를 활용해 집계했다며, 물론 집계한 통계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전북으로서의 전북경제 도약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한 예산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한 도의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우려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런 행사를 진행할 컨벤션센터 하나가 없어서 전북대학교 운동장에 돌형 방식의 커다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지만 그 래도 짧은 청년들 2만5,000여명이 살아 움직이는 전북대 교정에서 치르는 행사이기에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다.

지난 6월 11일 전북연구원이 개최한 백년포럼에서 강사로 참석한 전남대 JS글로벌한상연구원 이장섭 원장은 ‘세계한상네트워크를 통한 전북 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오래전 배용준과 최지우가 출연한 드라마 ‘겨울연가’ 덕분에 아베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이 한국 팬이 되어 팬들과 함께 개별적으로 한국을 찾기도 할 정도로 한류의 열풍이 거세며, 동남아를 비롯하여 심지어 중동에서도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한 도민은 “우리는 이번 대회를 잘 치르고 세계에서 전북자치도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고래민 문화유산을 잘 가꾸어서 선보여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미소짓는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는 우리 외국 동포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구축한 다양한 ‘세계한상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새만금 국가산단단지의 투자유치와 전북 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도 세워야 한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들의 글로벌화 전략도 수립하게 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조민규 의장·차남준 부의장·상임위원장들 선출

고창군의회는 4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조민규 의장



차남준 부의장

이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고창군의회의 의장에 조민규 의원, 부의장에 차남준 의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에 이선덕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성만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임종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조민규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제9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차남준 부의장은 “늘 군민의 편에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살피면서 부의장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서로 존중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고창군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원구성을 마친 고창군의회는 이어 오후 4시에 제9대 전반기 의장단 회의 퇴임식을 진행했으며 임정호 의장은 퇴임사에서 “의정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반기 의회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후반기 의회에 서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본격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 의장단이 지난 3일 관내 기관·단체를 방문해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를 논의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김경진 의장과 강경숙 부의장은 익산상공회의소(회장 김원호),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 익산경찰서(서장 고영완)를 차례로 방문해 취임인사와 함께 제9대 후반기 의정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